

이승은 | 연구원 (제 7159)

- 주요 뉴스: 트럼프, 철강 관세 인상 및 중국 무역합의 위반 비난·제재 확대
 - 미국, 4월 소비 및 물가 지표 둔화
 - 중국, 인프라 투자에 5,000억위안 할당 계획
 - 영란은행, 국채 매각 수준에 따라 예산에 부담을 줄 소지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트럼프의 對중 발언, 근원 PCE 발표 등이 영향
 - 주가 약보합[-0.01%], 달러화 강세[0.16%], 금리 하락[-2bp]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미중 갈등 후 대화 예고로 변동성 확대 속 약보합
유로 Stoxx600지수는 관세 협상 기대감 등으로 상승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경기 지표 약세에도 연준의 금리 동결을 예상하며 상승
유로화 가치는 0.2% 하락, 엔화 가치는 0.13% 상승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근원 PCE 하락으로 3주래 최저치
독일은 5월 CPI 상승률 둔화 등으로 1bp 하락

※ 뉴욕 1M NDF 종가 1380.2원(스왑포인트 감안 시 1383.2원, 0.23% 상승). 한국 CDS 하락

		4/18일	4/17일	전일대비			4/18일	4/17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5,911.7	5,912.2	-0.01%	국채 금리 10y	미국	4.40%	4.42%	-2bp
	유럽	548.67	547.88	0.14%		독일	2.50%	2.51%	-1bp
	중국	3,347.5	3,363.4	-0.47%		영국	4.65%	4.65%	0bp
	일본	37,965	38,433	-1.22%	CDS 5y	한국	29bp	30bp	-1bp
	한국	2,697.7	2,720.6	-0.84%		중국	51bp	52bp	-1bp
	달러지수	99.4	99.3	0.16%	위험 지표	EMBI+	-	385	-
환율	유로화	1.1347	1.137	-0.20%		VIX	18.57	19.18	-3.18%
	엔화	144.02	144.21	0.13%		WTI유	60.79	60.94	-0.25%
	위안화	7.199	7.1861	-0.18%	원자재	구리	467.75	467.55	0.04%
	원화	1,380.1	1,375.9	-0.31%		금	3,289.3	3,317.9	-0.86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종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트럼프 대통령, 철강 관세 인상 및 중국 무역합의 위반 비난·제재 확대

-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닛폰제철의 인수를 앞둔 US스틸 공장을 방문해 철강 관세를 현행 25%에서 50%로 두 배 인상할 것이라고 발언. 관세 인상이 경쟁자들을 차단해 미국 내 새 합작법인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언. 해당 관세 인상 조치는 다음 주부터 발효될 예정
-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판하며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기대한다고 발언. 다만 중국의 구체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
- 미국 무역대표부(USTR)의 제이미슨 그리어는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통제가 트럼프의 발언 이유라고 지적. 중국이 희토류 자석 등 자원을 점점 차단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입장. 한편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 없이 미국이 반도체 수출 통제 남용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답변
- 중국은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핵심 광물 수출을 단속한 것으로 분석. 백악관 핵심정책참모 스티븐 밀러는 중국에 합의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며 유학생 비자 제한 등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있다고 강조
-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거래제한 기업으로 지정된 중국 기업이 자회사로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'자회사 규정' 도입 예정. 거래제한 기업의 50%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에도 동일한 제재를 적용하는 규정으로, 이들과의 거래는 미국 정부에 허가를 받아야 할 가능성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, 4월 소비 및 물가 지표 둔화

- 4월 실질 개인소비지출은 0.1%(mom) 상승했으나 전월(+0.7%)대비 증가세는 둔화. 내구재 지출의 큰 폭 감소가 서비스 지출의 증가로 보전된 결과
- 연준이 물가 판단 지표로 사용하는 근원 PCE는 4월 2.5%(yoy) 상승했는데, 이는 4년래 가장 작은 연간 상승폭. 다만 관세 우려로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등한 점을 미루어볼 때, 연준은 관망하는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

■ 중국, 인프라 투자에 5,000억위안 할당 계획

- 중국은 미국 관세로부터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총 5,000억위안 규모의 자본을 배정할 계획. 이 자본은 레버리지를 활용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는데 사용될 전망. 중국의 3대 정책은행이 자금을 조달해 프로젝트에 지분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
- 자금 투입 시점은 불분명하지만,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달 올해 핵심 건설 프로젝트를 6월말까지 결정하고 자금 조달 도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. 중국 증권시보는 중국 인민은행의 지준담보대출(PSL)이 자금 투입의 또 다른 잠재적 재원일 수 있다고 보도

■ 영란은행, 국채 매각 수준에 따라 예산에 부담을 줄 소지

- 영란은행은 국채시장 불안정으로 연간 £1,000억에 달하는 국채 매각 규모를 축소하라는 압력에 직면. 9월 예정된 매각 발표는 정부의 재정지출 여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귀추가 주목. 금리 상승으로 영란은행이 보유한 £6,200억 국채에서 정부가 부담 중인 손실이 발생 중이고, 매각 규모가 축소되면 정부에 £43억 재정 타격을 준다는 분석

■ 독일, 5월 CPI 전월 수준 유지, 예상치는 상회

- 독일 5월 CPI 예비치는 2.1%(yoy)로 전월 수정치(2.1%)와 같고 예상치(2%)는 상회. 인플레이션 위험이 남아있음을 시사하나, 주요국 인플레이션 둔화(이탈리아 및 스페인 2% 이하, 프랑스 0.6%) 등에 따라 6월 ECB는 금리 인하할 것으로 예상. 다만 유로존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 점은 우려 요인

■ OPEC+, 7월 원유 증산 논의 중

- OPEC+는 토요일 회의에서 7월 원유 생산량을 41.1만배럴(5·6월 증산 규모) 이상 증산하는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. 카자흐스탄 등 일부 과잉 생산국을 견제하고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려는 목적

주요 경제 지표

■ 다음주 주요 경제 이벤트(현지시각 기준)

- ECB 통화정책회의(5일),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(6일)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37, E-mail selee@kcif.or.kr